

종합건강진단센터

서 선 애
(고려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

現代는 의학적 견지에서 볼때, 치료중심의 사회를 지나 예방 의학이 강조되는 사회이다. 최근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의학이니 간호학이니 하는 구분 보다도 과거 광의의 의료 개념(medical care)이 오늘에는 건강 관리 개념(care health)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모든 사람의 건강 요구에 따르는 실시(care delivery)를 위해 의사와 간호원을 위시해서 여러 분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분업적이면서 연합적인 기능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크게 요청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의사와 간호원, 기타 관련된 전문 직업인들이 함께 연구하고 계획하는 공동 작업이 이미 건강 관리가 잘 실시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진 과제로 되어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전 및 보건·간호학의 발전은 평균 수명의 연장을 가져왔고, 특히 현대는 물질 문명 사상의 대립·인간 관계 등으로 인해 정신 보건 문제가 중요시 되며, 각 교육·산업·교통·그룹·단체기관 등 집단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예방간호와 건강교육이 간호의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조와 경향은 간호교육 내지 업무면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간호의 철학과 목표를 새로 정립해야될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겠다. 다시 저슬러 올라가 1943年 Dr. Winslow가 내린 공중보건의 정의를 보면 “공중보건이란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며, 질병을 예방하

고,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증진시키는 예술이며 과학이다.”라고 했다. 예방의학이란 협의의 공중보건을 의미하는 것이며, 역학·환경위생·보건통계·보건행정·보건간호·보건교육·산업보건·사회보건·영양·모자보건등 그범위가 광범위한 공중보건 속에서, Mediscreen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중보건을 실시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검사방법을 널리 대중에게 적용시켜 날로 더해가는 성인병과 조기암을 발견해내서 사전에 방지하여, 명랑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작은 시간안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그 결과를 빨리 알아볼수 있다는 점이 Mediscreen이 가진 매력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며칠씩 일원을 해서 해야만 했던 과거의 종합건강진단은 얼마나 시간적·경제적 낭비인가! Mediscreen은 현대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역사가 길지는 않으나, 기존해 오던 검사 절차나 방법이 그 당시의 상황과 필요에따라 알맞게 수정될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갈 것으로 본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Mediscreen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Mediscreen수는 손으로 꼽을수 있을 정도이다. 실시된 순서대로 적으면 강남성모병원, 부산 메리놀병원, 고려병원이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등지에서는 Mediscreen이 보편·대중적으로 실시되어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있으며, Mediscreen차(car)를 가지고 자 기업이나 산업 단체를 돌아다니면서 체크해내는 정도로 발전하

고 있다. 이는 결국 치료와 예방이 명확히 구분되어 지듯이 병원과 Mediscreen은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실무자로서 Mediscreen에 근무하면서 아쉬운 점은 Mediscreen에 대한 부족된 혹은 잘못 알고있는 국민인식이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대중화되기 까지 오랜시일이 걸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경제의 안정과 사회의 안정을 통해 국민 소득이 증대되면, 예방이 치료보다 우선이라는 인식이 자연히 생길 것이므로 Mediscreen을 하나의 의료행위로 생각 하는 것에서 매년 행하는 신체검사의 일종으로 인식해서 실시되어 질것임을 기대해 본다.

Mediscreen이 이 땅에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Mediscreen을 하나의 사치의료행위나 정밀검사 하는 곳이나 절쟁이한테 물어보듯 자신이 느끼거나 혹은 못느끼는 모든 증상과 앞으로의 자신의 건강상태까지 알아내는, 갖인줄 잘못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선 탈피해야 하며, Mediscreen에 대한 것을 국민 모두에게 알리고 교육시키는 사람은 바로 의료계에 종사하는 우리들 자신이어야 한다. 죽기 직전까지는 혹은 죽기 일보직전으로 아플때까지는 병원에 가지 않으며, 아픈때도 없는데 병원에 갔다가 어디가 나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니 병원엔 안가고, 차타리 모르는게 약이지. 알면 병이다라는 식의 위험하고 고루한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언제쯤 탈피할수 있을까? 생활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육신이 지치고 병드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좋다는 법이 있는가? 앞으로 우리도 사회복지시설이 확충되면 우리의 이러한 사고방식도 바뀌어지리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참고삼아 건강진단 내용을 소개하고, Mediscreen에서의 간호원의 역할을 들으므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건강진단 내용>

1. '문진'
2. 혈액 검사
3. 소변 검사
4. 대변 검사
5. 흉부 X-선 검사
6. 위장 X-선 검사
7. 당부하 검사
8. 혈압 검사
9. 심전도 검사
10. 신체 계측
11. 폐기능 검사
12. 시력 검사
13. 청력 검사
14. 안저 사진
15. 안압 검사
16. 치과 검사
17. 부인과 검사
18. 유방 X-선 검사
19. ultrasonography
 - 1) Liver
 - 2) pancrease
 - 3) Biliary tract & Gall bladder

이상의 검사를 2~3시간에 걸쳐 실시한 후 종합판정과 영양상담을 하며 이때 나온 모든 Data와 기록은 모두 건강진단수첩에 기록해서 주게 된다. 이것으로 건강진단에 대한 소개는 다치기로 하고, 다음에는 Mediscreen에서의 간호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이곳의 간호원은 보건간호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검사 받는 사람이 불편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신적·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한 사람에게서는 음기를 추어서, 올바른 사회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의뢰 정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것을 교육시켜 줄 때 있다. ☞